

2 0 2 4 지 구 촌 교 회

가 정 예 배 순 서 지



VOL.24
2024 5-6

타협하지 않는 모세와 아론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



복음성가

지 412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3-15

- 03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 04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 05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 06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 07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 08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냐
- 09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 10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 11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 13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 14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 15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둑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1. 애굽의 바로는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박이 멈추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 여덟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은 이번에도 거절하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뚜기가 와서 우박을 피한 모든 나무를 먹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항변하듯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의 말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 중 일부만 보내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모세와 아론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내보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르는 척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화를 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고 말한 후에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말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 땅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수많은 메뚜기들이 애굽 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메뚜기는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애굽 온 땅을 덮었고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인가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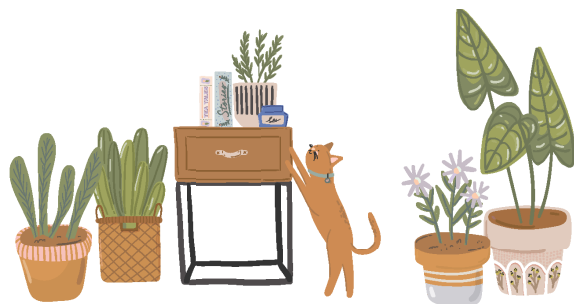
복음성가

지 407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1-10

- 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 02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 03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 04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 05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멧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 06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 0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 08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 0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시고
- 10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왕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자 기적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은혜(상대를 존경하고 그의 필요를 따라 극진히 대접하는 상태)를 받게 되었고, 애굽을 떠날 마지막 채비를 합니다.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며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모세의 호렙산 소명 사건 이후로 6개월 이상 출애굽이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방치하며 출애굽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들이 준비하는 동안 대내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만방에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 또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자신의 크고 작은 비전(꿈)을 나누고 이루기 위한 나의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순종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복음성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 21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 22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 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 24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 25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 26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 27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 28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 29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 30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 31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 32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 33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 34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 36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 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 38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 39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 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1.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마다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밤새도록 집 안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와의 유월절 제사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전에 9번의 재앙이 있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는 사람,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구원 계획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밤사이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됩니다. 나의 힘과 경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넘어셨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복음성가

지 257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1-16

- 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 0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 0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 04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 05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 06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 07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 0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 0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올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 10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 11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 12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와 의 것이니라
- 13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 14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물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 15 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 16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1.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 급히 떠나야 하기에 미처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던 것을 떠올리며 이 기간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무교절에는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였는데 누룩의 특성이 발효시키는 것이므로 부정적 영향력을 전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의미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빛은 빵으로 지키자(새번역)”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옛적 애굽에서, 우리를 노예 삼던 죄에서 떠난 사람들이기에 죄를 멀리하고, 기록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죄의 유혹이 있다면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의 것을 전체와 다름 없는 것으로 보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심판하는 것과 다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것은 장차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부활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태생을 요구하신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지 않도록 날마다 살피야 합니다. 내 주변에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영적 환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복음성가

지 292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 0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 0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 0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0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 0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 이니
- 0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밧돌 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 0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 0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 0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 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 11 [없음]
- 12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 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지 논쟁하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신 후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을 들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믿는 작은 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은 소나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하게 하는 것이 손이거나 발이면 찍어 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범죄하게 하는 것이 눈이라면 빼어 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르고 실제로 빼라는 뜻이 아니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무척 사랑하시며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내가 고쳐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권면과 기도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복음성가

지 259장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15-20

-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 본문의 ‘형제’는 신앙을 바탕으로 맺어진 공동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형제들을 돌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죄범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지체이기에 두고 보는 것이 아닌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권고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 권고하는 단계, 그 다음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는 단계,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하는 단계, 네 번째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지체인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권고가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상대방을 위한 권고가 되어야 합니다.

2. 예수님은 공동체(교회)에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시고(18절) 이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19절). 두 사람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친교나 합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두 사람의 일치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간구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합당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한 간구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특권을 나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함께 나누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받은 대로 용서하라



찬송가

270장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성가

지 162장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21~35

-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주어야 하는지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서는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한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넘어서 일곱 번까지, 심지어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완전한 용서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용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임금과 종들이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한 종은 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 달란트는 보통의 사람이 250년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종은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을 간청했고, 임금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들을 붙잡아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백 데나리온은 보통 사람의 100일 치 급여입니다. 본인이 탕감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작고 작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이 탕감해 준 빚을 모두 갚으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잘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용서했던 경험이 있나요? 지금 내가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짜지어 주신 것을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복음성가

지 425장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1-12

- 0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 02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 0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 0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 0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 0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짜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 0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 0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 0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 10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대
-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 12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이다



1.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이혼에 대한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과거에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비판하여 참수당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같은 곤경에 빠지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결혼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명분 삼아 이의를 제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본래적 의도를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자기변명의 이유로 삼거나, 자신에게 합리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혼의 정당한 명분이 되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교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이혼이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커다란 사유 외에는 결코 이혼하지 말라는 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연합하신 부부는 하나님과 교회처럼 깨져서는 안 될 언약의 관계입니다. 성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직한 하나 된 연합체여야 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인생의 영원한 반려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일을 한 가지만 정해봅시다.

어린이를 향한 축복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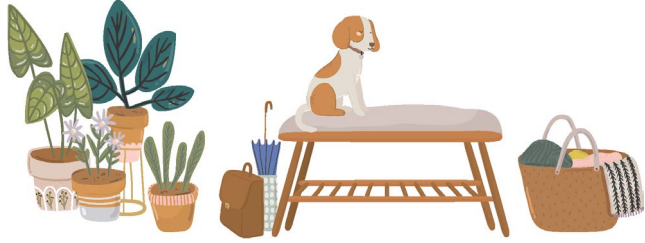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복음성가

지 61장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13-22

- 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 15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 니이까
-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1. 마태복음 19장 13~15절은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둘러싼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며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이렇게 어린이와 같은 이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성취한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우리는 어린이처럼 나를 반갑게 안아주실 예수님의 팔을 향해 기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아감에는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외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도 계산도 가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2. 반면에 16절부터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꼭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소유와 재물을 포기하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나되게 하는 조건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나 자신으로만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삶과 마음, 내 존재의 깊이에 어린이의 겸손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를 방해하는 부자 청년의 자존심과 교만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가장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어린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이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과 어떤 모습이 닮았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on a white background.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대화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질문하고 어떤 대답도 존중하며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
평안함이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작품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자의 그늘 아래 늘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녀이름**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16~17)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늘 하나님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시고,
자신의 삶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워가며,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낫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